

#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이 자연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라면 수직 정원은 도심 속으로 가져온 대자연이다. 스텔라 맥카트니 런웨이에 설치한 수직 정원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과 (보그 코리아)가 나누는 대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채로 수 시간을 버티는 패션쇼장은 이산화탄소 과다로 인해 호흡이 가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번 시즌 스텔라 맥카트니의 쇼장은 달랐다. 런웨이 벽면에 설치된 수직 정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린 심리 치료'와 더불어 적절한 산소까지 공급해주었다. 이 런웨이를 만든 이는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 그는 과거의 수많은 박물관과 카페, 호텔, 플루즈의 자연사 박물관, 시드니의 살롱 칸다스 일본의 킨텐포리 아트 뮤지엄, 인도의 프랑스 대사관 등 A48지 5장을 확보할 정도로 세계 각지 수많은 건물에 수직 정원(일반적으로 'Vertical Garden'이라고 불리며, 그는 'Le Mur Vegetal(Vegetal Wall)'이라고 표현한다)을 설치해왔다. 또 현재까지도 파괴된 열대우림에서 적은 햇빛 아래 자라는 식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있다. 패션계에서도 친환경 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도심 속에 평화로운 자연을 만들고 있는 그가 식물, 여행, 패션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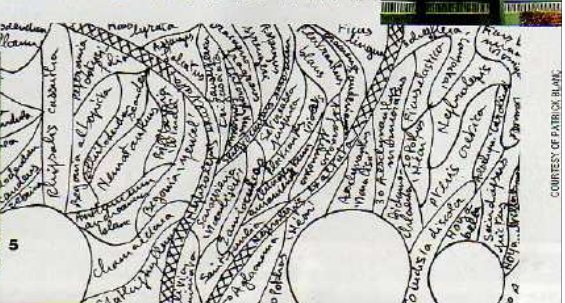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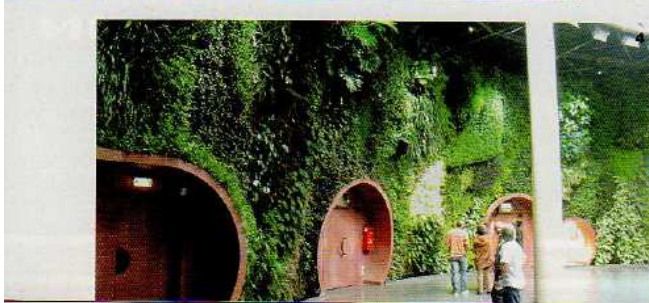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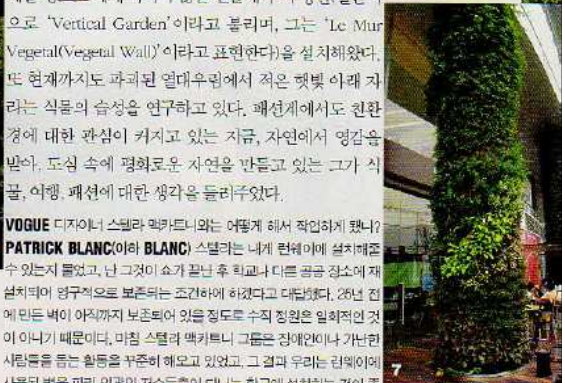
**VOGUE**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와는 어떻게 해서 작업하게 됐나? **PATRICK BLANC**(이하 **BLANC**) 스텔라가 내게 런웨이에 설치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난 그것이 쇼가 끝난 후 학교나 다른 공공 장소에 재 설치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조건하에 하겠다고 대답했다. 28년 전에 만든 벽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수직 정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침 스텔라 맥카트니 그룹은 장애인이나 기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런웨이에 사용된 벽을 파리 외곽의 자선단체에 보내는 회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이 더욱 돋보이도록 인해 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알차게 식물을 많이 사용한 수직 정원물라들었다.

**VOGUE** 수많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들었다. **BLANC** 물론이다. 35년 전,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여행한 이래로 한 번도 여행이 내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여전히 나는 전 세계 자연 생태계를 추적하기 위해 떠난다. 침이 있는 파리에 2-3주 이상 머물러 적이 없을 정도다. 내 정원의 대상은 언제나 자연적인 장소, 특히 우림이다. 자난해에는 카나리 신, 대만과 하와이의 작은 섬들에 갔다. 파리 대륙 시절 때는 박사 논문을 위해 미국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양한 숲을 방문했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림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폭포의 부드러운 알박을 따라 올라갈 때 나는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VOGUE** 전 세계 오대륙에서 식물 집합을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나? **BLANC** 식물 먹은 삶에, 실외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오픈스·소평물·아파트 등의 실내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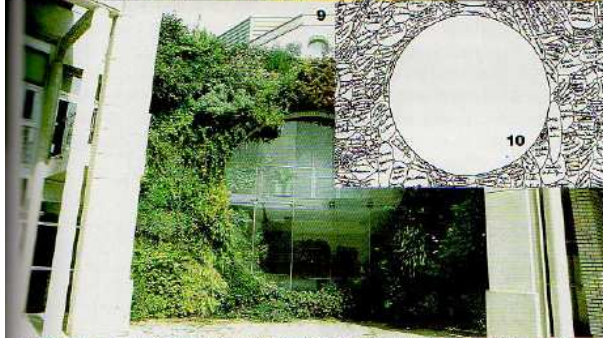


1 미드윅드에 있는 카이사 포럼 뮤지엄, 2 파리의 테리콜라에르 호텔 내부, 3 수직 정원의 문드는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 4-5 호주에 위치한 거대한 수직 정원의 내부와 식물학자 블랑의 인터뷰 해, 6 나나 씨빌은 스페인, 7 스페인 이베리아에 있는 호텔과 아파트, 7 영국 의 에스트레메이드 소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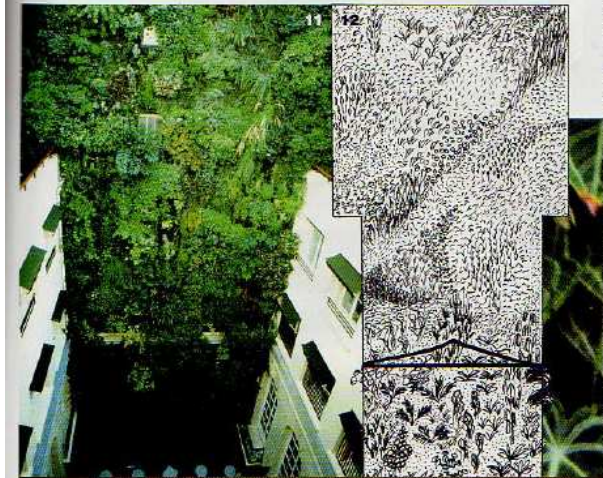


5

COURTESY OF PATRICK BLANC



8 영국식 시얼 파리고 소팔로, 9-10 원형 디자인의 유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수직 정원 시스템, 11-12 파리의 프랑스 호텔에 설치된 수직 정원, 13 시드니의 심플 컨트리 하우스에 설치된 타원형의 실내 정원, 14 방콕의 엘브리얼 쇼핑몰의 기둥을 에워싼 수직 정원, 15 대만의 콘서트홀 로비에는 거대한 수직 정원이 자연의 기운을 더하고 있다.



8 서양대 유럽처럼 만들곤 한다. 하지만 설마의 경우는 각 나라의 상황과 기후에 따라 다르다. 모든 도시의 다른 기후에 맞도록 버티길 거듭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그 지역의 식물 종을 선택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항상 그곳을 방문해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지역의 식물과 경관을 먼저 알아본다. 1,000㎡의 벽을 위해 4백 종의 다른 식물들을 사용한다.

**VOGUE** 재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BLANC** 수직 정원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메탈 프레임, PVC 층, 그리고 펠트, 우선 메탈 프레임은 벽에 새우거나,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공기 층을 완성한다. 그리고 1층 두께의 PVC를 메탈 프레임에 리본으로 고정시키면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 방수도 가능하다. 그 다음, PVC 위에 펠트 층을 고정시키면 부식이 방지되고, 물이 균등하게 퍼지게 된다. 루라는 이 펠트에서 자라게 된다. 수분 공급과 비료는 자동으로 공급되는데, 걸벽에서처럼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식물과 메탈 프레임은 포합해 무게는 ㎡당 30kg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직 정원은 사이드와 높이에 상관없이 어떤 벽에나 만들어질 수 있다. 전란적인 기술적인 요소는 특허를 받았고, 식물 설치물 또한 예술적인 디자인들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VOGUE** 그렇다면 흙은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인가요? **BLANC** 그렇다. 물과 아주 많은 미세물이 적절한 빛과 함께 공급된다면, 세계의 자연을 연구한 결과 많은 식물들이 걸벽이나 돌과 같은 덜어진 암석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그 결과 흙이 있어도 물만 부족하지 않다. 흙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VOGUE** 당신의 식물 정원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BLANC** '살아 있는 식물로 표현된 그림'처럼 즐겨라고 말한다. 식물 정원을 보는 건 박물관에서 거대한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몇 미터 뒤에서 바라보거나 가까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또 일반적인 정원에서는 정원사 혹은 식물관리자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 이동하며 식물들을 보게 되지만, 식물 정원은 그림을 관람하듯 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시선을 움직이며 즐길 수 있다. 6월에 영어로 출판된 나의 책에 더욱 자세한 비유가 실려 있다.

**VOGUE** 특별히 수직 정원을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나? **BLANC** 일반적으로 식물은 저수 볼 수 없는 장소들, 기차역, 전철역, 터널, 배, 비행기, 높은 건물 등에 수직 정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만들고 싶다.

**VOGUE** 그렇다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식물 벽이 다른 형태인가요? **BLANC** 모든 새로운 작업은 내게 모험과도 같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파리에서조차도 특색은 식물 벽을 만든 적이 없다. 특히 설마의 벽은 환경이 다르다. 그 환경에 맞도록 가장 적합한 식물의 종을 선택해야 한다.

**VOGUE** 특별히 좋아하는 식물은 뭔가요? **BLANC** 중국, 한국,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아이리스 계열을 야외 식물 벽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잎의 형태와 모양이 좋다.

**VOGUE** 몇 시즌 진행 중 풀 고티에 걸려선에서 식물 드레스를 선보였다.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 걸까요? **BLANC** 타일러까지 많은 디자이너의 옷을 좋아한다. 내 옷은 거의 여행하면서 산 것이다. 지금은 파리에서 산 산발과 서울에서 산 앙달, 동아프리카의 수도 진지바에서 산 바지와 풀 바지에서 산 속옷, 하노이에서 산 셔츠와 방목에서 산 재킷을 입고 있다. 하하.

**VOGUE**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나. 당신에게도 음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BLANC** 아홉 살 때 파리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녀는 내게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다. 그리고 내 친구가 만든 인도의 영화 음악도 즐겨 듣는다.

**VOGUE** 세계를 여행하면서 꼭 들르는 곳은? **BLANC** 박물관과 갤러리 등을 모두 둘러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도시를 끌고루 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여행할 때 그곳의 자연사 박물관은 꼭 둘러본다.

**VOGUE** 당신의 작업 하스트리아에서 서울을 발견하곤 아주 반가웠다. **BLANC** 몇 년 전 서울에서 프랑스 건축가 겸 누벨이 지은 집에 아주 흥미로운 식물 벽을 제작했던 적이 있다(누군지 밝히기는 어렵다). 그때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국엔 여섯 번 정도 갔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정말 좋아한다. 북한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정말 흥미로운 다양한 식물 종들을 볼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제주도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의 다채로운 식물군에도 반했었다. 그렇게 식물들이 잘 보존된 나라에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빌딩들에도 식물 벽을 만든다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VOGUE** 당신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식물 정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BLANC** 도시엔 존재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자연 에너지 / 강운지

